



**우리들교회 주일예배 생방송 2025.08.10**

제목: 여호와 앞에 앉아서  
 본문: 사사기 20:18-28  
 설교: 이성훈 목사

18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벳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19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20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21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이만 이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22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23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4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25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팔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6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벳엘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니라

김양재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건 가족싸움, 말씀 복음밖에 습니다...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결혼과 자녀 출산 우리나라 현안이고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아기 낳아기르기 천국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결혼하기 바라요

수련회 쿠페는 대인관계, 간증훈련입니다. 가면 도움되요 교회서 하는건 무조건 참석하세요.

이성훈 목사님:

대규모 내전 발생후 한사람의 레위인은 사라집니다. 경작해야 되는 시대에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동족산장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사기 최대의 전쟁은 내전이며 역설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내왕 없다고 내왕 어디갔냐고 내놓으라고 불평불만하면서 자기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결과는 비참한 타락일뿐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시대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한거 같아요.

사사기 전체의 교훈은 끔찍한 죄인인 우리가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앞에 앉아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언제 앉아있을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언제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1. 답이 있을 때는 아닙니다.

치러가기전에 묻습니다. 누가먼저 올라가냐고 묻는것과 같은 사사기 초반에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백성은 여전히 잘 물어보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40만대 2만6천7백명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은 질수도 없고 저서도 안되는 싸움이었어요 전사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했겠냐는 거예요. 자기맘대로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키는대로 했을건데 당연히 이겨야 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와장차깨졌어요. 이해할수 없고 억울하고 분노가 났을겁니다. 잘못은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이 한거 아니냐고 마땅히 심판은 그들이 받아야 하는데 싸움하고 보니 베냐민이 이겼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수 있었겠어요?: 불평억울함 분노가 싸인이라는거예요 문제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싸인인겁니다. 서로 다른 감정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옳음이 틀림 취급을 받을때입니다. 불평이 생기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겁니다. 내가 확신했던 정답을 오답이라고 하니 받아들일수 없는 것입니다.

기브아는 처형 두둔하는 베냐민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결론을 내렸고 스스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했을것입니다. 자기끼리 다결정해놓고 딱하나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선봉에 스냐고.... 중요한 질문같지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가령 우리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누구랑 할지.... 또 결혼한 다음 자기끼리 다 결정한 다음 부모님한테 찾아갑니다... 우리 언제 무슨 요일에 할까요? 이런거 물어보는거예요... 중요한건 결혼 자체가 이르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구와 결혼할지..가 중요한 건데 요일 물어보고 우리는 부모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것을 물어야 합니다.기브아가 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별하지 못하고 두둔하는 베냐민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끔찍한 악행이 발생했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잘못하고 우리가 무엇을회개해야 합니까? 를 물었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답을 다

정해놓고 사소한 문제 하나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걸 시늉만하고 구색만 맞추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들 앞에 앉히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만한 시도입니다. 성공하기를 바랬겠지만 오히려 성공되면 그것이 더 문제인겁니다.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고 버려두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자라면 이런 거만한 시도는 오히려 지고 패배하고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답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면 되지 뭘 그렇게 상관하려고 그래라고 생각하는것....

제가 하나님앞에 겸손하게 앉아있었냐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다 정해놓고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웬만한 일은 제 스스로 알아서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바쁘시잖아요.... 여러분을 살리셔야 하는데 나라도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려야 하는거 아닌가...제가 목사를 해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엄청 거만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학교, 전공, 사역지, 결혼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 다 답을 내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인도를 구하지 않았습니. 그도그럴것이 학교에서 제가 답을 잘 맞추지 않았습니까? 저는 수학문제를 찍어서 맞추었다는 겁니다. 무려 주관식 기학문제를요. 점점 착각에 빠지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요 길이다...ㅎ

결혼도 첫날에 이사람과 저는 저혼자 이사람과 결혼해야 겠다고 답을 정했습니다. 그러니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는거예요...그래서 서둘렀어요. 3개월 남짓한 연애기간동안 조르고 협박해서 결혼을 얻어냈지만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저를 알고 아내가 보이니 인생이 고달프겠구나가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 생각이 답이라 생각했기에 반대의견들 다 무시했어요 연애하면서 우리 둘 사이에 이사람은 아니라고 징조 싸인을 주셨단 말이죠.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징조를 주셨음에도 내안에 답이 있으니 다 무시했습니다.

다 술술 다 풀리고 아내가 제맘대로 다 움직이고 이루어졌달하면 저는 지금쯤 최대로 제 기대대로 다 잘됐을때...인생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라고 떠들었을 것입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헛된 인생이었을것입니다.

정말 자격도 없는 저를 결혼이라는 큰 패배를 당하게 하시고 가족들과의 관계 사역현장에서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여기는 오답인 저의 생각이 아니라 100%옳으신 가정과 사역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오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앉히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며 하나님을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장에 큐티와 말씀으로 물어보세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앉는 순종인줄 믿습니다.

[적용질문]

우리는 언제 여호와 앞에 앉을 수 있을까...

2. 힘이 있을 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패배를 했지만 스스로 용기를 내어 회복합니다.

2만2천명이 죽었지만 남아 있는 용사가 있다는 겁니다. 14배나 많습니다. 여전히 압도적 힘이 있습니다. 패배를 극복할 힘이 남아 있어 싸울 준비를 합니다. 두번은 안진다 하며 자신감 오기를 부리며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전열을 다 갖추고 나서 다시 여호와 앞에 올라갑니다. 날이 저물도록 울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스스로 극복할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릴수 있겠습니까? 애절한 눈물이 아니라 비장한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러이까?

잘 생각해보면... 전쟁을 할지 말지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구했더라면... 패하자 마자 그자리에 가서 힘을 내서 전열을 갖추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답을 구했더라면 패배직후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싸울 준비 다 해놓고 다시 싸울까요? 묻는 것은 몰라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던대로 싸울테니까 이번에는 도와주세요. 그런줄 아세요... 하고 통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행할테니 싸인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말에 ... 하나님은 간단히 한마디로 올라가서 치라...고 하십니다. 질문 수준에 딱 맞는 대답을 하십니다. 번역하면 원하는대로해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 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전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힘이 빠졌을거 같아요 두번의 전투에 4만명이 죽습니다. 하나님 뜻을 진심으로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걸맞는 결론을 주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스스로 돌이킬수 없고 혼자 힘으로 나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이 있을수록 더 그럴수 없어요... 힘이 없을수록 눈치를 보면서 어쩔수 없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뜻과 생각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구하게 되는것에요 주님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이 빠지는 사건...이 축복이에요. 힘 빠지는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평생 수고하며 쌓아왔던 귀한 것들인 건강, 자격, 돈, 관계 등 의지하는 것들이 꺾꺾 빠져나가는 사건을 겪으면 그런 힘빠지는 사건들도 주님안에서는 축복인줄 믿습니다. 힘 빠지는 사건이 올때 움켜쥐는 수고를 하지 마시구요 그냥 힘을 더 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리를 딱 잡고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나를 양육하고 코치해주시기 위해 붙여주신 사람과 사건앞에서 알아서 기면 힘을빼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 앞에 길을 여는 비결인줄 믿습니다.

[적용질문]

우리는 언제 여호와 앞에 앉을수 있을까?

3. 울며 회개할 때입니다.

이제 세번째로 올라갑니다. 이번엔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 기록자가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2번은 모든 백성은 안올라갔는데....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호와 앞에 겸손히 앉는것에 있어서 간절하지 않았다. 진짜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았다... 답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들어야 된다는 간절함이 생길수 없었던 것입니다. 2차례 큰 패배를 당하면서 힘이 제거가 되니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멋대로 맘대로 준비하던 것을 멈춥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패배하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수치를 그대로 안고서 전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자 드디어 회개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앞서 자기연민의 눈물을 흘릴때는 계속 말합니다. 올라갈까요 다시 싸울까요 이번엔 안질거예요 때를 쓰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끄러운 모습으로 앞에 서니 조금은 죄송하고 나같은 죄인에게까지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까는

비장한 눈물을 흘릴때는 도장 찍어달라고 비장한 요구를 했는데 더이상 조르지 않고 여호와 앞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것은 두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하던것 가던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둘째 정해진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장 멈추고 힘행사 멈추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들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는거예요. 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처방을 기다린다는 표시 입니다. 그러자 예배가 회복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사기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기록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350년동안 말이죠... 이런 회개가 없으면 암흑기가 우리 인생에 계속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니 이 사람들의 질문이 바뀝니다. 싸울지 말지 답이 있을때는 묻지도 않았습디다. 도장 찍어주세요 통보했습니다. 회개하고 울면서 싸울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결혼 할까요... 아님 멈출까요....] 하나님의 결정에 맡깁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리이까 하고 묻는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고민을 많이 하고 목장에서 고민하고 여기엔 늘 우리가 관심이 많아서 쉽게 생각할수 있는데 사각지대.... 가 있어요. 바로 말리이까.... 입니다. 확신으로 당연하게 밀어붙이는 일이 있는데.. 명분이 있기에 멈춰야 된다는것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저같은 사역자는 더 그런거 같습니다. 사명이라고 착각할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어딴것습니까.. 사역자라고 선하겠어요 사역조차도 내 판단대로 확신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멈춰야 될까요? 말리이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좀 말리이까를 목장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결혼 하지 말까요? 결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겠다]

엽기적인 이 사건 사사시대 마지막에 일어났던 일이구나 하며.. 악이 커져서 이렇게 됐다 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지킨 재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은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모세를 보고 아론도 보고 여호수아도 뵈십니다 사사시대 끝나가는 휴기가 아닌 여호수아 죽은지 얼마 안된 첫 사사가 세워지기도 전 일어난 초기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악이 쌓인 사사기 후기가 아니라 사사기 초반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장 끔직한 범죄 내전인데... 사사기 초에 이런 끔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증손자가 타락한다고... 사사기의 대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타락 엉망진창의 사건의 중심에 레위사람 제사장.... 성골인 모세의 증손자와 아론의 증손자가 있다 이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에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장담할 인생은 없습니다. 혈통 조건 배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바락에 군대를 동원할때는 만명이었어요 레위인은 전국을 선동해서 40만명을 움직입니다 자기죄를 덮으려고 말이죠... 래위인이 온나라를 큰 싸움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가나안 사람과 전쟁할때도 40만명을 동원한 적이 없어요... 최대 동원은 자기들끼리 벌인 내전이었어요. 이 세상에 정말 무서운싸움은 가족싸움이고 교회싸움이고 동족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레위의 증손자같은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절망할거 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악이 더 크고 작냐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전부다 행위중심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무리아무리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답을 스스로 얻고 찾을수 없는겁니다. 나하나 구원할 힘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지쳐서 사라질뿐입니다. 밀동짚린 언제 죽어도 이상할거 없는 짧은 인생... 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 앞에 앉아서 거할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에 반대는 무엇일까요? 두루마리에 쪽 기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으로 딱 접고 처음과 마지막 끝단이 달고 중간이 생기겠죠... 여호와 앞에 앉아서 라는 구절과 겹쳐지는 그 구절이 어딘지 아시나요? 2장 12절...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버렸다는 구절.... 기록자가 천재적인...위트적 구성을 잘해냈더라구요.. 여호와 앞에 앉아서의 반대말은 떠났다.. 버렸다...는 구절이고 딱 그 접히는 중간인 부분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10장 10~16절인데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고백과 하나님의 진단이 나와있는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우상따라 섬기던 백성이 하나님이 위협을 하시니 거기서 떠나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화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사사 입다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핵심메세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앗을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치유제를 여호와 앞에 앗는것이라고 여호와를 버릴수 밖에 없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처방이다. 여러분 이렇게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 앗을수 잇것어요? 어떻게해도 하나님 앞에 앗을수 없는 존재인 소망이 없는 우리기에 하나님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려는 시늉 하나님 앞에 앗으려는 시늉만 해도 함께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건짐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등장하는 그 어떤 사사도 사사다운 구원자 다운 사사가 없습니다. 전부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망가진 인생이에요 평균치 보다 낮아 보이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늘 비교하면서 이사사, 저 사사 세우면 잘될거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것 역시 끝없는 방황일 뿐입니다...방황을 그치지 않고 절망할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딱한번 그 사사가 나오는데요 정관사 더를 붙인 그 사사가 나옵니다. 12장 7절입니다.

그 사사 여호와 라고 하나님이 딱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곳에서 방황하는 것을 멈추고 힘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앉아야 합니다. 스스로 방황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찾아가니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